

## 상식의 벽을 넘어 기술의 벽에 도전한 카메라의 전설

'찰칵'하는 셔터 소리에  
추억을 저장하고, 흘러가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지금. 요시히사  
마이타니(Yoshihisa Maitani)가  
없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경량 카메라의 보급화,  
대중화를 이뤄내 우리 손에  
컴팩트한 카메라를 안겨준 그의  
고집스러운 장인정신 이야기를  
들어보자.

米谷美久

YOSHIHISA  
MAITANI



30

##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

소위 장롱카메라라 불리는 올림푸스 펜 OM시리즈, 무려 40여 년 전에 출시된 이 카메라는 여전히 마니아층을 두고 있을 만큼 그 인기가 간재하다. 1973년 혁신적인 설계와 과감한 디자인으로 카메라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카메라는 요시히사 마이타니(1933~2009)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는 일본 카메라의 중흥 시대를 연 대표적 인물로 불리며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56년 23세 나이로 올림푸스 광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한 그는 '6,000엔에 팔리는 카메라를 만들라'는 미션을 받았다. 당시 세계는 앞선 설계와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독일 라이카사의 카메라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사랑을 독점하는 만큼 그 대가는 값비쌌는데, 카메라 가격이 당시 일본인들의 반년 이상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집안이 넉넉했던 요시히사 마이타니는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늘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라이카 카메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저렴한 카메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카메라는 비쌌 뿐 아니라 무겁고 작동이 어려워 90% 이상의 사용자가 남성이었다. 요시히사 마이타니는 미션의 타깃을 겨우 2.3%에 달하는 여성 고객으로 정했다. 올림푸스사는 반대했지만 그는 '쉬운 사진', '즐길 수 있는 사진'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 1959년 10월, 최초로 디자인한 카메라 '펜(PEN)'을 선보였다. 혁신적인 금액이었던 6,800엔으로 판매를 개시한 펜은 최초의 하프 프레임(Half Frame) 카메라

라로, 기존 카메라 필름의 절반만 사용해 카메라 및 렌즈의 크기, 단가까지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법과 콤팩트한 크기, 저렴한 가격으로 여성을 포함해 누구나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만든 시작이었다. 카메라의 보급화, 보편화, 대중화의 역사가 열린 것이다.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 올림푸스의 히트작이었던 '와이드'와 '35S' 모델이 월 1,000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한 것에 비해, 펜은 월 5,000대를 생산하면서도 내놓기가 무섭게 매진되었다. 이후 올림푸스는 여성, 초보자, 전문가를 위한 서브 카메라 등 각 타깃에 맞는 카메라를 설계하며 6종의 펜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요시히사 마이타니는 남성의 전유물, 1년치 월급의 반이라는 금전적 부담 등 당시의 상식을 깨고, 지금 우리 손에 카메라를 선물한 역사적인 도전의 아이콘이다.

## 살아있는 베스트셀러가 되다

요시히사 마이타니가 당당하게 내놓은 펜이 대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림푸스사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매뉴얼 기능은 물론 눈금조차 없어 기술적으로 후퇴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기존 펜의 기능을 더욱 단순화한 'PEN EE'를 출시했고, 초보자와 여성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여성들은 작고 가벼운 PEN EE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기 시작했고, 예술 사진이 아닌 일상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PEN EE의 엄청난 판매량에 올림푸스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정도였다고. PEN EE는 기존보다 10배에 가까운 월 7만 대를

생산해도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베스트셀러(Best Seller), 말 그대로 최고의 판매자가 된 것이다. 이후 1962년에는 렌즈와 셔터 기능을 향상시킨 프로 작가용 사양의 'PEN D', 1963년에는 세계 최초의 하프 사이즈 렌즈 교환식 SLR 카메라 'PEN F'를 줄지어 출시한다. PEN F 시리즈는 유려한 곡선과 한쪽으로 치우친 렌즈 위치, 고풍스러운 모양의 'F'로고 등으로 화려한 디자인적 요소가 자랑이다. 덕분에 여성 고객들이 주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보도사진가 유진 스미스(Eugene Smith)가 사용하면서 더 유명세를 얻었다. 뒤이어 1973년 요시히사 마이타니는 펜 시리즈에서 연마한 초소형, 경량화 기술로 660g의 SLR급 카메라 'OM-1'을 개발한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기종으로 꼽히면서, 금속의 산화 방지와 열차단 장치 등이 부착되어 그의 획기적인 기술이 집약된 카메라로 찬사를 받았다.

1956년 라이카의 서브 카메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결국 라이카를 넘어서 올림푸스를 세계적인 카메라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으며 초소형, 초경량, 대중화된 카메라 역사의 문을 연 셈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올림푸스가 만들어온 카메라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시히사 마이타니가 있었다. 2009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한 그 해에는 마침 그가 최초로 만들었던 올림푸스 펜 카메라가 디지털 버전으로 재탄생하던 해였다. 자신의 작품이 다시 태어나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던 해, 그는 아마 행복하게 눈을 감았으리라 짐작해본다.

Olympus - PEN EE



Olympus - PEN F

